한 학기 한 책 읽기 - 독후활동지

|유아, 초등 저학년|

〈바다에 빠지기 직전의 집〉

석영주 글 | 차호윤 그림 | 마술연필 옮김 | 보물창고 펴냄

★ 〈커커스 리뷰〉 올해 최고의 책
★ 〈혼 북〉 팡파르 선정도서

6.25 전쟁 75주년을 맞아, 보물창고에서 출간한 I LOVE 그림책 『바다에 빠기지 직전의 집』은 아이들과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겪은 전쟁의 참상을 어디부터 어떻게 설명해 줘야 할지 몰라 난감한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이다.

『바다에 빠기지 직전의 집』에 그려진 6.25 전쟁 당시 피난민들의 궁핍한 생활 속에는 서로 돕고 위로하는 따뜻함과 희망의 메시지 또한 녹아 있다. 또 '6.25 전쟁은 왜 일어났나요?' '6.25 전쟁 또는 한국전쟁, 뭐가 맞나요?' '삼팔선과 휴전선은 달라요' '비무장지대' 등 6.25 전쟁에 관련된 역사부터 알쏭달쏭한 용어 설명까지 간략하지만 알기 쉽게 설명한 부록이 수록되어 있어, 아이들에게 6.25 전쟁을 알려 주기 위한 길잡이 그림책으로 손색이 없다.

읽기 전 활동

1. 표지 그림을 보고 느낀 점이나 분위기를 서로 나누어 보세요.

2. 제목『바다에 빠지기 직전의 집』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제목은 어떤 의미일지, 어떤 내용의 이야기가 펼쳐질지 생각해 보고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3. 6.25 전쟁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을 서로 이야기해 보세요.

읽기 중 활동

1. '피난민'은 무슨 뜻인가요? 사전이나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 보세요.

2. 김씨 아저씨는 왜 경이네 집을 '바다에 빠지기 직전의 집'이라고 불렀나요?

3. 두려워서 울고 있는 경이를 엄마와 아빠는 어떤 얘기를 하며 위로해 주었나요?

4. 전쟁이 끝나고 난 뒤, 경이는 손님들과 함께했던 시간이 잊지 못할 선물이 되었다고 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읽은 후 활동

1. 할아버지 할머니가 6.25 전쟁 때 겪었던 일이나,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께 전해 들었던 이야기 등을 듣고 그때 내가 거기에 있었다면 어땠을지 상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역할을 했을지, 어떤 느낌이었을지 생각해 보고 글로 쓰거나 한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 보세요.

2. 6.25 전쟁에 대해서 새로이 알게 된 사실이 있다면 적어 보세요.

3.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친구를 도와주었던 경험이 있다면 이야기해 보세요.

4.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예요.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